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예능 '자매다방' 2회부터 레전드 찍었다!
윤계상, 진선규, 김지현, 이정하 파격 텐션 UP! 웃음 특공대 입증!

2025. 11. 24.







제공: 쿠팡플레이

쿠팡플레이 예능 <자매다방>이 2회 만에 또 한 번 토요일 저녁을 초토화시켰다. 오늘의 메뉴 ‘김밥’과 ‘미숫가루’를 앞세워 두 번째 영업을 연 수지, 이랑 자매 앞에 의 윤계상, 진선규, 김지현, 이정하가 총출동하며 예측 불가 티타임을 완성했다.

<자매다방>은 수지, 이랑 자매가 오늘의 수다 한 스푼, 낭만 두 스푼을 더해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함께 즐기는 다방 토크쇼다.

첫 영업부터 ‘예능 신홍 강자’로 급부상한 <자매다방> 2회는 오프닝부터 파란만장한 영업을 펼쳤다. 윤계상은 토크 시작과 동시에 ‘잔소리쟁이’, ‘영감쟁이’라는 별명을 얻었지만, 곧 주저없이 1세대 아이돌 다운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.

달리기, 골프, 자전거, 카포에라까지 ‘운동 취미 부자’ 진선규는 운동 경험 전무인 이수지와 허벅지 씨름을 펼쳤고, 예상 밖 처참한 승부로 다방을 초토화시켰다. 이어 <범죄도시>의 장첸과 위성락으로 소환된 윤계상과 진선규는 이수지와 함께 연변 사투리 릴레이를 펼쳐 폭소를 안겼다. 이수지의 “**사장이 새끼 아니니?**”와 윤계상의 “**죽고 싶니**”까지, 이 날의 티타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능 리듬이 끊기지 않았다.

여기에 김지현은 뮤지컬 명곡을 라이브로 선사하며 다방의 공기를 순식간에 낭만으로 물들였고, 등장과 동시에 “**배고파요**”를 외친 이정하는 김밥을 ‘셀프 무한 리필’해 먹으며 순도 100% 풋풋한 매력을 쏟아냈다. 이어 ‘야알못’ 여사친으로 빙의한 이수지와 프로 야구팀 응원 댄스를 함께 따라 추다가 폭주, 자매다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.

<자매다방>은 수지, 이랑 자매의 특유의 티키타카와 스타 손님들의 케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회차마다 새로운 재미를 갱신하고 있다. 2화에서는 배우들의 인간미와 예능감이 폭발적으로 녹아들며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‘토요일 도파민’을 선사한 가운데, 다음 화에는 어떤 스타 손님들이 찾아와 유쾌한 티타임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.

쿠팡플레이 예능 <자매다방>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,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.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도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